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 시대(1467~1600) 말기에 전국 통일을 도모한 세 영웅(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중 첫 번째 인물이다. 군사적인 면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지녔던 그는 장창과 화승총을 사용하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다. 한편으로는 축성 기술도 크게 발전시켰다.

1551년에 노부나가의 아버지인 오다 노부히데가 사망한 후 노부나가는 가문의 힘을 통합하여, 1560년까지 지금의 기후와 나고야 주변의 지역을 지배하에 두었다. 오케하자마 전투(1560)에서 노부나가는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이끄는 25,000명의 군세를 화승총으로 무장한 불과 3,000명의 병력으로 격퇴했다. 1567년에는 이나바 산성을 수중에 넣고 성과 성하마을의 이름을 '기후'로 바꿨다. 그 후 약 10년 동안 성을 확장하여, 1576년에 현재의 시가현에 새로 완성된 아즈치성으로 옮길 때까지 기후성을 거점으로 사용했다.

영향력과 군사력이 높아진 노부나가는 더욱 야심차게 자신의 힘으로 천하를 통일하려 노력했다. 1575년에는 나가시노(아이치현)에서 벌어진 대규모 총격전에서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다케다 가문의 군세를 꺾었다. 1578년에 우에스기 겐신이 사망하면서 구심력이 약해져 있던 우에스기 가문을 산하에 두었고, 1580년에는 권력에 반기를 든 불교 종파 일향종의 봉기 집단을 섬멸했다. 1581년에는 현재의 미에현 이가 지방을 장악하고, 1582년 초에는 다케다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아케치 미쓰히데(1528~1582)는 오다 노부나가가 가장 신뢰한 가신 중 한 명이었다. 1582년 6월, 노부나가는 주고쿠 지방에서 진행 중이던 전투에 지원군을 보낼 것을 미쓰히데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미쓰히데는 자신의 13,000명 규모의 부대를 이끌고 노부나가가 당시에 머물고 있었던 교토의 혼노지 절로 향했다. 미쓰히데는 주군인 노부나가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를 공격했다. 압도적 다수의 군세를 가진 미쓰히데의 공격을 받은 노부나가는 화살에 부상을 입고 안쪽 깊숙한 방으로 몸을 피했다가 결국 칼로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미쓰히데는 야마자키(교토부) 전투에서 노부나가의 가신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의 군대에 패해 도주하던 중에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노부나가가 죽은 후, 그가 목표로 한 천하통일에의 길은 히데요시가 이어받게 되었다.